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教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基督教聖潔教会와 宣教協約

長·監·聖과 協力關係로 在日同胞 宣教에 全力



總会和 大韓聖潔教会의 宣教協約 調印式

聖潔教会、在日伝道이미 시작 世界宣教会에도 힘을 기울여

基督教大韓聖潔教会(總
會長 崔健鎬)와 總會와의
宣教協約 締結이 지난 一
月十日 서울 聖潔教会 본
部에서 盛大히 舉行되었다.

第一部長 崔健鎬는 金榮一
牧師(宣教師局長)의 司會,
백천기 總務과 姜榮一 總
務가 兩教團을 紹介하였
다. 基督教大韓聖潔教会로
부터 선물 贈呈이 있던
후 강신찬 牧師가 祝禱한
후 禮拜를 마쳤다.

第二部長 兩教團 代表
가 宣教師 協約文에 調印을
하였다. 宣教師 協約文은 이
미 韓國 五教團과 맺고 있
어 宣教師 協約에 調印함으
로 본 總會가 本國教会와
宣教師 協約을 맺은 教團은
六教團이 되었다.

宣教師 協約을 맺은
聖潔教会는 韓國人에 의
해서 伝道가 시작된 자
생 教團으로서 웨슬레의
體驗 信仰에 立脚한 福
音主義 神學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一九四三年十二月二九日
三月三日 關東地方會 主

日立에 開拓伝道所 開設 百教会 教会開拓에 拍車



鄭仁和宣教師

日帝 治下에서 神社參拜拒
否로 인해 強制解散을 당
하기도 했으나 八七年間
各樣의 逆境과 試練을 克
服하고 힘차게 成長하여
現在 二、四五〇教會、七〇
萬 信徒로 構成한 韓國의
三大教團으로 發展하였다.
또한 世界 宣教師에 힘
을 기울여 現在 三〇個國
에 一七六名의 宣教師를 派
送하여 四八八個의 教會
開拓을 비롯한 原住民 教
役者 養成 및 病院 使役
스스로 宣教師 多様な 分
野에 걸쳐 世界 宣教師
一翼을 担当하고 있다.

本 總會 안에서 使役하
는 聖潔教会 出身은 李俊
鶴 牧師가 札幌教会에서 牧
會를 하고 있으며 李牧師
는 聖潔教会의 支援아래 函
館、旭川等에 開拓教会를
세우기 위해 準備하며 祈
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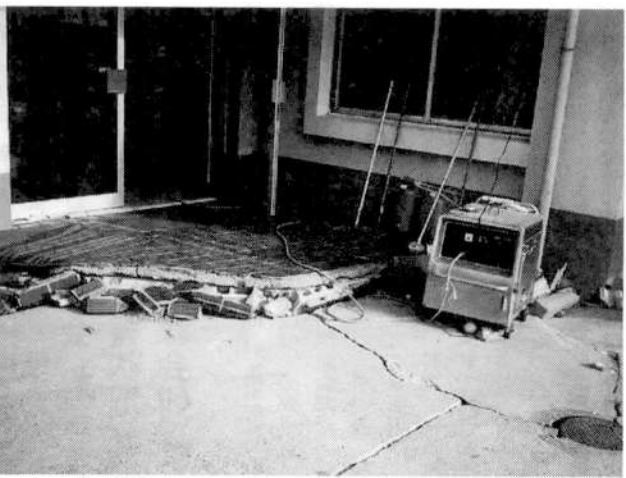
催로 舉行되었다.

臨時堂會長 趙重來 牧師
의 司會, 金柄鎬 牧師의
禮拜, 鄭然元 牧師의 說教
(異邦의 빛으로, 本文使
徒行 13:46-52)가 있었
다. 鄭牧師는 說教를 통해
日立 伝道所를 세워주신 것
은 주님께서 우리를 異邦
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救援의 福音을 전하게 하
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傳道所 創立式은 地方
會長 尹宗銀 牧師의 司式
으로 日立 伝道所 創立經過
報告와 教役者 紹介가 있
은 후 日立 伝道所가 伝道
所로 設立된 것을 宣布
하였다.

鄭相熙 牧師의 勸勉과
姜榮一 總務, 教團 關東教
區代表 若月健悟 牧師,
茨城縣地區長 加藤玄明 牧
師의 祝辭가 있던 후 鄭
仁和 宣教師의 인사가 있
었다. 李址永 聖徒의 廣告
가 있던 후 趙重來 牧師
의 祝禱로 創立 禮拜를
마쳤다.

總會는 在日韓國·朝鮮
人의 福音 宣教師를 위해
一〇〇教會 教会 開拓을



阪神大震災로 地盤이 내려앉은 神戶教会

阪神大震災로 教会破損

在日同胞 救援活動에도 總會가 全力

一九九五年 一月 十七日
午前 五時四十分경 일어난
阪神大震災는 兵庫縣 地
域에 엄청난 被害를 가져
다 주었다. 특히 在日同胞
가 많이 居住하고 있는
神戶市는 大震災의 中心
地域이었다.

이번의 大震災로 인해
總會에 所屬된 神戶教会
(辛鐘國 牧師 시무)와 川
西教会(文泰善 牧師 시무)
는 内部 破損이 되었으며
神戶東部教会(金德化 牧師
시무)의 牧師館破損, 信

徒들의 家屋破損, 그리고
信徒들이 經營하는 工場도
破損되었다.

阪神大震災로 인한 死
亡者는 五四六〇名이 넘
은 가운데 信徒의 召天은
一名이며 在日同胞의 死
亡者數는 一五〇名이 넘
었다. 負傷者는 十餘名이
었다. 특히 本國에서 事業
등의 關係로 神戶地域에와
있던 사람들도 被害를 입
었다.

被害를 입은 神戶教会는
二層에서 禮拜를 드려왔으
나 教會 바닥이 가라앉고
벽에 균열이 생겨 언제 무
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現
教會堂에서 禮拜를 드리
기가 어렵게 되었다.

總會는 阪神大震災가 發
生한 直後 總會長 金君植
牧師를 위원장으로 하는
「在日大韓基督教 阪神大
震災對策委員會」를 組織하
고 現地 對策委員會를 組
織하여 對策 및 具體的인
救援活動을 펴고 있다.

總會의 對策委員會는 傘
下各教會에 救援獻金을

緊急히 要請하였고 本國
의 教會와 宣教師의 関
係各教團에게 뜨거운 기
도와 救援을 要請하기도 하
였다.

福音新聞 二月號休刊

事情에 따라 二月號를
休刊하였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告

一九九五年 宣教師加入 牧師·講道師 試取
本總會 試取委員會는 一九九五年 宣教師加入 牧
師·講道師의 試取을 다음과 같이 實施한다.

一、日 時... 一九九五年四月十七日(月) 午前十時
二、場 所... 在日韓國基督教會館(KCC)

三、試取委員會 試取을 받을 수 있는 者는 本總會
所屬教會의 洗禮敎人으로서 三年以上을 經由한
者로서 아래의 各項目에 該當하는 者라야 한다.

①神學大學學院의 課程을 卒業한 者
②一般大學을 卒業한後, 神學本科 三年의 課程을
卒業한 者
③高等學校를 卒業한後, 神學校 五年의 課程을 卒
業한 者
④高等學校를 卒業한後, 或은 同等의 學力을 具
備했다고 試取委員會가 認定한 者로서 上記 三
項의 神學的 素養이 있다고 認定한 者
等五條 第四條①③④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다
음 試取科目을 課한다.

①本總會 信條와 憲法 ②說教 ③舊約聖書諸論
④新約聖書諸論 ⑤舊約聖書義 ⑥新約聖書義
⑦教會史 ⑧組織神學(基督教社會倫理學 包含함)
第六條 第四條④에 該當하는 者는 第五條의
試取科目에 보태어 다음 科目을 課한다.

①해라이 初步 ②世界思想史 ③宗教史 ④基督教
教育 ⑤敎會學과 敎會心理學
四、宣教師加入 試取... 憲法, 口頭試驗
五、試取科目

①舊約神學... 律法(모라드 舊約聖書一、二, 關根의 舊約に
超越한 象徵)
②舊約神學... 詩篇(51編) ③사부앞下 12章
③新約神學... 요한神學(그리스도使徒의 特質)
④新約神學... 고린도前書 1:18-25(마음神學의 立
場에서)

⑤組織神學... 갈·바르트神學의 功獻 ⑥幼兒洗禮에
對해 ⑦終末論과 그 現代의 意味
⑥敎理史... ①독일 敬虔主義 ②스콜라神學
⑦憲法

⑧講道師... 記述預言者(總說舊約聖書 第五章 子言
と暗示 三二五-四二二)
②舊約聖書... ①創世記45章 ②이사야書6章
③新約概論... 共觀福音書(各著者의 思想的 特質等)
④新約聖書... 로마書 12:9-12(神學的인 聖義)
⑤組織神學... ①義認과 聖化的인 關係 ②汎神論과 理神
論 ③隨罪에 對한 諸論과 아우그스티
누스論
⑥教會史... ①古代教會의 諸會議에 關해 ②宗教改
革에 對하여

六、提出書類... ①試取申請書 ②履歷書 ③堂會長·地
方會長推薦書 ④敎會申請書 ⑤寫眞一
枚 ⑥講道師는 最終學籍證明書
七、마 감... 三月三十一일까지
八、提出處... 總會事務所
※應試者의 旅費는 該敎會 또는 該機關에서 補
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九九五年三月十五日 試取委員長 尹 宗 銀

阪神 震災 甚大なる傷処 남겨

總會서 対策委員會를 組織 西部各教會에 甚大なる被害

總會는 阪神大震災가 發生한 直後 想像을 超越한 大震災임을 判斷하고 在日大韓基督敎會 總會 阪神大震災對策委員會를 組織, 委員長에 金君植 總會長, 副委員長에 李大京 牧師, 許唱業 長老로 하고 本部를 總會事務所에 두어 對策活動의 本部長을 總務 姜榮一 牧師로 選任하였다. 또한 總會對策委員會는 現地 對策委員會를 組織하였다. 組織은 委員長에 趙載國 牧師, 書記에 金吉雄 長老, 會計에 李清一 牧師, 副會計에 崔文子 氏, 委員에 李聖雨 牧師, 朴光用 牧師, 女性會代表 青年會代表 金承熙 氏로 構成, 武庫川教會를 現地 對策本部로 하여 對策 및 救援活動을 펴고 있다.

특히 總會의 對策本部는 現地 對策本部의 被害狀況을 接受하는 즉시 在日大韓基督敎會 總會 緊急通信" 등을 作成하여 阪神大震災의 被害狀況을 本部 國教會를 비롯하여 世界 國教會에 發送하는 한편 緊急救援을 要請하기도 하였다. 또한 現地對策本部는 救援物資 輸送을 위한 輸送車 確保, 青年會와 女性會에 대한 보란티아 要請을 하는 등 救援活動에 萬全을 기하기 위해 獻身的인 奉仕活動을 하고 있다.

2. 神戶東部教會/牧師 館內部 破壞, 家屋全壞는 張福順, 尹公壽, 宋畢順, 鄭永任, 韓景周, 金善, 朴晶智, 鄭政淑, 洪英子, 李芸求이며 아파트 破壞으로 避難生活를 하고 있는 信徒는 柳惠連, 柳姿鉉,



壁과 天井에는 금이 갔고, 옆은 5° 정도 기울었다.



在日同胞가 살던 지역. 對策委員이 보고 있다.



生死安否를 確認하기 위해 붙여 놓은 生死確認書

負傷者는 小林宗翁, 宋弘美이다.

3. 西宮教會/韓東來聖徒(七十歲)가 召天, 負傷者는 金連남, 김계성(教會에 避難), 家屋 全壞는 金得三 牧師, 金今安, 俞永濤, 姜命乞, 金末珠, 趙福點, 金明子, 金快成, 김대영

4. 川西教會/教會堂一部 破壞, 家屋全壞는 趙金, 朴玉順(身體障礙者)이며 文泰善 牧師와 사모는 体調不良으로 靜養中

5. 武庫川教會/負傷者 朴良全, 李相任, 李好子, 高卜女, 朱礼中, 家屋 破壞는 朱徹中, 任秉魯 장로, 朴海任, 金命珍, 朴貞姬, 姜連基, 李順子, 金任南, 鄭慶沢, 朴龍順, 鄭東鎮, 康美洋子, 朱京中, 姜寧善, 金淑子, 趙京辰, 張善心, 金德淑, 工場破壞는 金吉雄長老, 朴貞姬이다.

다長老教會, 世界 教會의 聯合機構와 本國教會 그리고 宣敎協約을 맺고 있는 各敎團은 阪神大震災를 만난 阪神地域의 本總會의 敎會를 激勵하기 위해 電報를 보내왔다. 또한 本國總會는 義援金을 被害를 만난 本總會의 敎會를 위해 보내 왔으며 所屬全國敎會에 救援獻金을 要請하기도 하였다(獻金內訳은 追後 報告).

總會 對策本部 被害狀況을 世界 敎會에 알려

現地 對策本部는 時間과 關係없이 必要에 따라 緊急會議을 갖고 活動狀況의 점검과 對策을 마련하고 緊密하게 救援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被害地域의 어려움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 마련, 特別 阪神大震災 地域의 總會傘下 各敎會의 어려움과 信徒들의 狀況들을 點檢하며 救援活動을 펴고 있다.

우선 現地 對策委員會는 被害地域의 在日韓國 朝鮮人의 死亡者, 敎會被害狀況들을 寫眞 撮影과 報告書를 作成하여 本國 救援活動을 함으로써 人해和解의 場으로 變했다. 특히 總連界의 西神戶初中學校에서는 思想을 넘어서 하나의 民族임을 確認하는 아름다운 避難所로 指目받게 되었다. 地震이 있기 전에는 日本人과 在日 同胞가 서로 만나 激勵하고 親密하게 避難生活를 하는 사람이 넘치는場所가 되었다. 또한 朝鮮連의 어느 간부는 民團 神戶支部를 찾아가 뜨거운 同胞愛를 나누기도 하였다. 總會의 關西地方會의 救援活動隊員과 現地 對策本部 委員들은 民團 뿐만 아니라 朝鮮連 神戶支部 찾아가 準備한 김치, 감자약들을 運達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어 올 겨울을 이겨 내줄것을 激勵하기도 하였다.

本部 對策委員 被害地域 激勵

總會 阪神大震災 對策委員長 金君植 牧師를 비롯하여 對策委員들은 總會傘下 各敎會의 어려움과 信徒들의 狀況들을 點檢하며 救援活動을 펴고 있다.

우선 現地 對策委員會는 被害地域의 在日韓國 朝鮮人의 死亡者, 敎會被害狀況들을 寫眞 撮影과 報告書를 作成하여 本國 救援活動을 함으로써 人해和解의 場으로 變했다. 특히 總連界의 西神戶初中學校에서는 思想을 넘어서 하나의 民族임을 確認하는 아름다운 避難所로 指目받게 되었다. 地震이 있기 전에는 日本人과 在日 同胞가 서로 만나 激勵하고 親密하게 避難生活를 하는 사람이 넘치는場所가 되었다. 또한 朝鮮連의 어느 간부는 民團 神戶支部를 찾아가 뜨거운 同胞愛를 나누기도 하였다. 總會의 關西地方會의 救援活動隊員과 現地 對策本部 委員들은 民團 뿐만 아니라 朝鮮連 神戶支部 찾아가 準備한 김치, 감자약들을 運達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어 올 겨울을 이겨 내줄것을 激勵하기도 하였다.

눈물이 땀이 된 被災同胞 信徒

이번의 阪神大震災는 人間의 驕慢에 대한 하나님의 責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神戶地域의 어느 敎役者는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셨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주셨다. 마음의 平安이다." 그러나 阪神大震災가 發生한지 二個月이 흐르고 있으나 아직도 神戶地域의 信徒들은 避難生活를 繼續하고 있다. 肉體的인것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 심한 疲勞를 가지고 있다. 이제 時間이 흘러 처음의 阪神大震災에 대한 關心은 사라지고 있다. 地震이 發生한 때는 生命만 건져낸 것에 安堵의 숨을 쉬었으나 지금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 앞으로 어떻게 生命을 扶持하고 살아야 할지 對策이 서지 않고 있다. 避難을 하고 있는 우리 同胞들은 매일 눈물이 땀이 되어 生活를 하고 있다. 아직도 被害를 만나 避難生活를 하고 있는 사람이 二十萬명이 넘는다. 너무나 避難生活의 辛을 어 自殺을 하는 老人들도 있다.

被害地域 各處 和解의 場으로

阪神大震災를 만난 地域의 民團과 朝鮮連은 뜨거운 民族愛의 한마음으로 救援活動을 함으로써 人해和解의 場으로 變했다. 특히 總連界의 西神戶初中學校에서는 思想을 넘어서 하나의 民族임을 確認하는 아름다운 避難所로 指目받게 되었다. 地震이 있기 전에는 日本人과 在日 同胞가 서로 만나 激勵하고 親密하게 避難生活를 하는 사람이 넘치는場所가 되었다. 또한 朝鮮連의 어느 간부는 民團 神戶支部를 찾아가 뜨거운 同胞愛를 나누기도 하였다. 總會의 關西地方會의 救援活動隊員과 現地 對策本部 委員들은 民團 뿐만 아니라 朝鮮連 神戶支部 찾아가 準備한 김치, 감자약들을 運達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어 올 겨울을 이겨 내줄것을 激勵하기도 하였다.

不 動 産 業 務 全 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 栄 企 業 株 式 会 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會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創業40年

通信・OA・OR機器全般販売・工事
簡易通訳設備

- 300MHz使用(FMではない)
- 工事不用 ○導入簡単

髙 德 通 信 工 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南教會 長老)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 (052) 431-3156(代)
FAX (052) 431-3190

有 限 会 社 赤 煉 瓦

代表取締役 申 德 藏 (下関教會 長老)

下関市大学町5-6-4
代表 (0832) 32-8192
自宅 (0832) 55-0142

최창화牧師 召天

北九州에서 總會葬으로 葬禮式



故 최창화 牧師

本總會의 會長이었던 최창화牧師가 二月八日午前十一時頃 宿患으로 召天하였다. 享年 六四歲이었다.

故人的 葬禮式은 二月十日午前十一時 中村組式典會館에서 弔客 四〇〇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西南地方會會長 李根秀牧師의 司式에 의해 總會의 葬으로 舉行되었다.

葬禮式은 一同이 默禱한 후 二九一章 讚頌、總郡宣川邑에서 出生、慶熙大學을 卒業한 후 留學을 爲한 牧師의 祈禱、崔正岡牧師의 聖經 詩篇23:1-6과 요한啓示錄2:8-11 奉誦、小倉教會聖歌隊의 弔歌、"죽도록 사랑하라"란 題目으로 李根秀牧師의 說教가 있었다.

이어서 一同이 起立하여 四五五장을 讚頌한 후 小倉教會의 執事 金鏡子執事의 故人 略歷 紹介、總會를 代表하여 總會會長 金君植牧師와 友人代表로 大養光博牧師、日隈光男牧師의 弔辭、弔電 披露에 張勝執事、遺族代表의 人事、頌榮六장、李根秀牧師의 祝禱 順으로 舉行되었다.

최창화 牧師는 一九三〇年九月二十四日 平北 宣川郡宣川邑에서 出生、慶熙大學에서 學業을 修了한 후 在 一五五五 年 宣置하는 納骨堂을 建築하여 現在 一五五五 年 宣置한 天하였다. 특히 NHK에 대

關聖連迎えて音楽礼拝

中部地方岐阜教会서 举行

「溢れる恵みは湧き出づる泉 ああ命 主に感謝」

これは關聖連常任指揮者であり、作曲もされた金必順さんによる合唱曲「静かに」の一節だ。

関西地方聖歌隊連合会による「音楽集會」いのちのうたは九四年十一月三日岐阜教会で、一三〇余名の聴衆を得て、深い感銘を残した。

この地では初めての開催であり、聖歌隊と女性会などは準備に多忙だったが、実体のつかめない催しとあ

って、プログラムなど開催間際にやっと間に合ったほどだ。それでも当日は定刻前から次々と聴衆が会場である堂を埋めはじめ、子供連れの人があふん出て会場から溢れ出す方へ移るほどになった。

第一部教会音楽の合唱、一曲が終わった時水を打ったような会場の雰囲気は、なやみと安堵の息をもらした。聖歌になじみの少ない人たちが数あったことを心配していたのだが、プログラムが進むにつれ会場はいきいきとした明るさで包まれた。

第二部に入ると、更に躍動する民族のリズムがなつかしいメロディを呼び起こし、一部での神の愛が人の生のよろこびとなつてあふれ出した。

チャングと合唱の長短の間に「善」の音が飛び、最後に祖國統一の念願を歌った「グリン 金剛山」で終ると大きな長い拍手がアッという間に活き活きとこつた。祖國を離れ、日本の地に住んでいる私たちが日同胞にはこの音楽集會が「共に生きる場」となり、心から祝う気持ちで一杯であつた。

プログラムが終り、聖歌隊と参加者全員との交流の場がもたれた。参加者のうち一組の老夫婦は「こんなにいきいきとした聖歌をはじめてきたような感動です」と感想を語った。うきうきとした雰囲気の中で、牧師に背負われて参加した筋ジストロフィーの松田さんは、一人でつくった自作曲の「雑草」などを一杯の声ではじめて歌い、新たな感動を添えた。

在日の教会の中から「共に生きる いのちのうた」を、このように活き活きとメッセージする聖歌隊の出現は、ひとつの驚きであり喜ばしい。その誕生を、この集會に参加した一同と共に心から祝う気持ちで一杯であつた。

岐阜教会にて開かれた関西聖歌隊連合会の音楽集會

金正三名誉長老 召天

西成教会서 告別式 厳粛に 举行



故 金正三 名誉長老

西成教会에서 李海春牧師の 司式 아래 大阪 西成教会의 葬으로 厳粛히 舉行되었다.

告別式에는 関西地方會會長 李海春牧師、西成教会의 牧師、信徒들이 多数 參席한 가운데 李海春牧師의 祈禱、李海春牧師의 聖經 朗誦、金元治牧師의 設教、沈九鍾長老의 故人 略歷 紹介、羅曾男牧師의 弔辭、崔定植 長老의 弔電披露가 있었다.

金正三 長老는 一九一一年三月十五日 二男一女중 長男으로 全南麗川市柱三洞에서 出生、一九三六 年十一月十日 林東樺氏와 結婚하여 四男一女를 두었다. 金正三 長老는 一九三一年에 渡日하여 一九三四年 長老 將立을 받아 教會 奉仕에 模範을 보이셨다. 桑名教會의 金聖基牧師가 長男이며 次男은 大阪 西成教會의 金聖大長老이다.

한 人格權訴訟을 내어 在日韓國・朝鮮人の 本名쓰기等으로 日本社會에서 關心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의 申京煥氏、宋斗會氏의 裁判等을 支援하는 등 的活動도 하였다.

總會로는 小倉教會에서 三五年間 牧會를 하였으며 一九八五年부터 西南 KCC理事長에 就任하여 在日同胞의 權益 問題에 宣敎의 情熱을 쏟는 한편、一九九一年에는 本總會의 會長에 選任되기도 하였다.

최창화 牧師의 著書로는 金嬌老 事件과 少數民族、國際法에서 본 國籍에 關한 考察、領土 變更과 國籍、國家와 人權、名前과 人權、韓國人/日本人 等 이 있다.

關西地方에서 正初查經會集會를 열어

關西地方會의 伝道部 주 관으로 一九九五年 正初查經會 集會를 一月四日부터 五日까지 京都地域、七日부터 八일까지 大阪地域에서 行졌다.

今年에 講師로 오신 朴大善 牧師는 關西學園의 中學、高校、大學을 卒業하신 후 歸國、牧會와 神學校教授、延世大學校 總長 등을 歷任하시며 十二年 동안 많은 敎界의 人材를 養成하신 人物을 輩出하신 元老이시다. 先親 朴尚東 牧師는 우리 在日大韓基督敎會 總會에서 一九二〇년부터 一九四五年까지 牧會를 하신 분이시다.

京都地域은 四日 京都南部教會에서 (1) 유대나라의 民族主義와 世界主義、(2) 내 平生 所願이었으며 京都教會에서는 (1) 작은 사 랑 (2) 紀元前八世紀의 子 言者들 (3) 人生 三景에 대 하여 말씀을 하였다.

七日에는 大阪 地域은 (1) 人生 三景 (2) 작은 사 랑 (3) 紀元前八世紀의 子言者들 (4) 紀元 前八世紀의 預言者들 (5) 솔로몬의 祈禱에 대한 은 해로운 말씀으로 聖徒들 은 한 해 동안의 決心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주 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敎會 사랑의 恩惠를 받게 되 었다. 금번 集會에 京都 地域은 二四七名、大阪地 域은 五八一名 등 총 人員 八二八名이 모여 서로 그 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많 은 恩惠의 體驗을 하였다.

阪神大震災를 만난 敎會와 聖徒들을 위해 祈禱합시다

阪神大震災는 그 地域에 살고있는 地域民들에게 엄청난 人命과 財産被害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總會에 속해있는 敎會와 聖徒들에게도 試練과 痛楚를 안겨 주었습니다.

災難을 당한지 二個月 이 지났지만 언제 前처 럼 信仰生活를 할 수 있 을가에 대해서는 不分明 합니다. 차차 그들을 위 한 祈禱의 熱意도 식어 가고 있는듯 합니다.

사랑하는 總會산하 各 敎會와 聖徒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祈禱로 被害敎會와 聖徒들을 激勵해주시시오. 여러분 의 사랑의 義援金을 보내 주 십시오.

送金처: 總會事務所 阪神大震災對策委員會

高馬宇 家庭料理 韓国

代表取締役 金元洙 (東京中央教會長老)

本店 〒105 東京都港区新橋3-18-4
TEL 03 (3431) 3921, 03 (3435) 7809
FAX 03 (3435) 0706
荏原中延店 〒142 東京都品川区中延2-8-13
田畑実業ビル1F
TEL 03 (3785) 1020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愛 三 有限会社

取締役社長 張鐘善 (名古屋教會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玄風産業株式会社 コスモス会 (結婚相談所)

顧問 金元治 (西成教會元老牧師)
代表取締役 張又基 (川西教會執事)

〒530 大阪市北区堂山町3-12
TEL (06) 314-1141・1221
FAX (06) 314-1141

も教える」と。しかし彼らが意味していることは何か？彼らが意味していることは、アダムという人物がいて、特定の時と場所に住んでいて、実際に神との間に立てられた戒めを直接的に逆って木の果実を食べたという意味であろうか？否である。彼らが意味しているアダムの話は、イソップのぐう話、作り話に『真実』が含まれているのと同じように、この聖書の物語にも真実がその中に含まれているという意味だけである。このような自由主義者たちの言葉の中にある『真実』という言葉は実際に起こった出来事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換言するならば、このような近代主義者たち

わたしたちが再び、この最初の罪の説話を読むならば(創2・17・3・11・8)きわめて明白な事実を一つ知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それは『これが正しい』あるいは『それは間違っている』といえる権利はただ神ひとりしかない。そしてアダムが正と邪を確実に判断できる唯一の道は神の言葉に誠実にとどまることであった(創2・17)。そしてアダムが正と邪を決定せねばならなかった唯一の法則は神の命令(戒め)であった。それゆえにサタンがその誘惑の力を集中したのがこの点であった。サタンはアダムに向かつて『あなたがたは決して死ぬことはないでしょう』(創3・4)と言わ